



LRQA Korea

안전보건 리더십 인사이트

2025년 2월



목차

문제 제기	03	▶
중처법 시행 4년, 혼란과 대응	04	▶
지난 3년의 노력, 그 결과는?	05	▶
법규 준수의 맹점 분석	06	▶
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 전략	08	▶
결론	1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 지난 3년의 노력은 어떤 성과를 가져왔나?

2025년,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법을 지켰다’는 말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 혁신을 이루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중처법은 법적 책임 강화로 인해 전 산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시행 4년차를 맞이한 지금,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 지난 3년의 노력은 어떤 성과를 가져왔나?

중처법 시행 초기 : 혼란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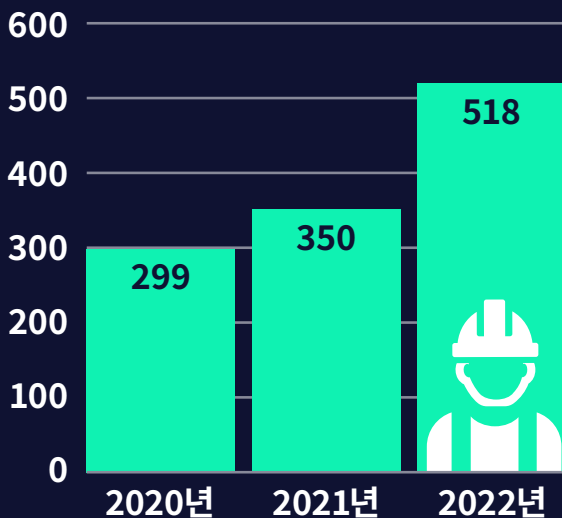
법 시행 초기, 많은 기업들은 중처법의 엄격한 규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중처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직책인 CSO(Chief Safety Officer)가 등장했습니다. CSO는 기업 내 안전보건 총책임자로서, 경영진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운영하거나 확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들이 주목받았고, 안전관리자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는 자연스레 연봉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직 시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안전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대비 채용공고 73% 급증



월평균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단위 : 건),
*출처 : 인크루트

국내 대기업 3사 안전관리자 인원 75% 증가



지난 3년의 변화와 한계

시행령 보완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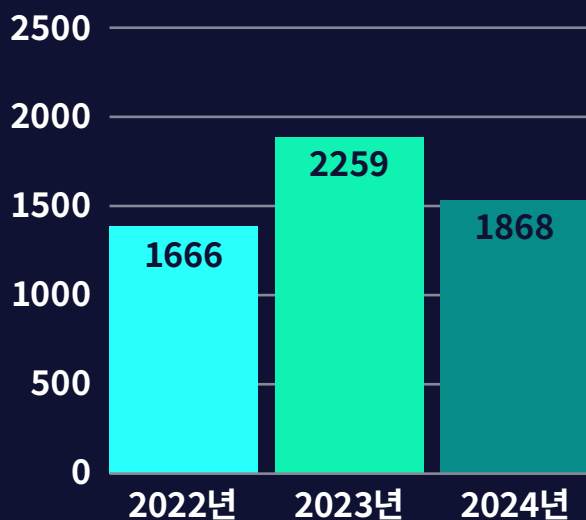
2022년 12월, 중처법 시행령이 보완되면서 기업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고,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강화를 이뤘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 평가 강화
- 관리감독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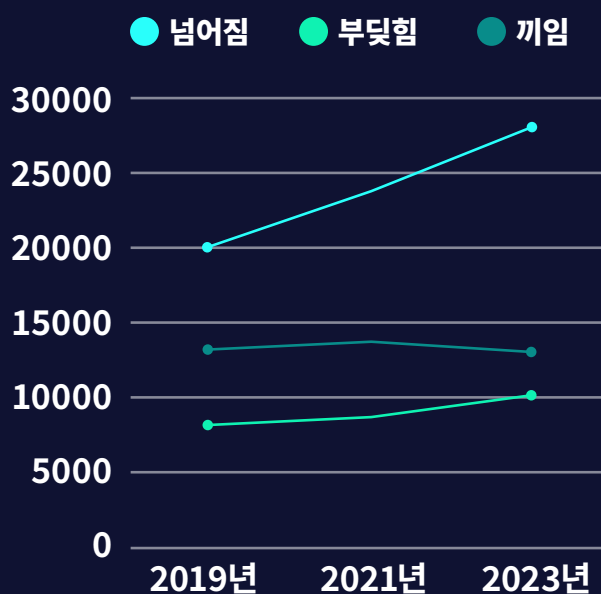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기업 내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으나, 문제는 여전히 형식적 대응에 머무르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준수에 초점을 맞춘 대응은 근본적인 사고 예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처법 이후, 안전은 정말 나아졌을까?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일부 산업 분야에서 산재 사고율이 감소했지만,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는 사고율이 오히려 증가 했습니다. 이는 법적 준수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회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재해자수는 22년 대비 24년에 202명이나 늘었고 24년 사망자는 35명으로 2023년 보다 2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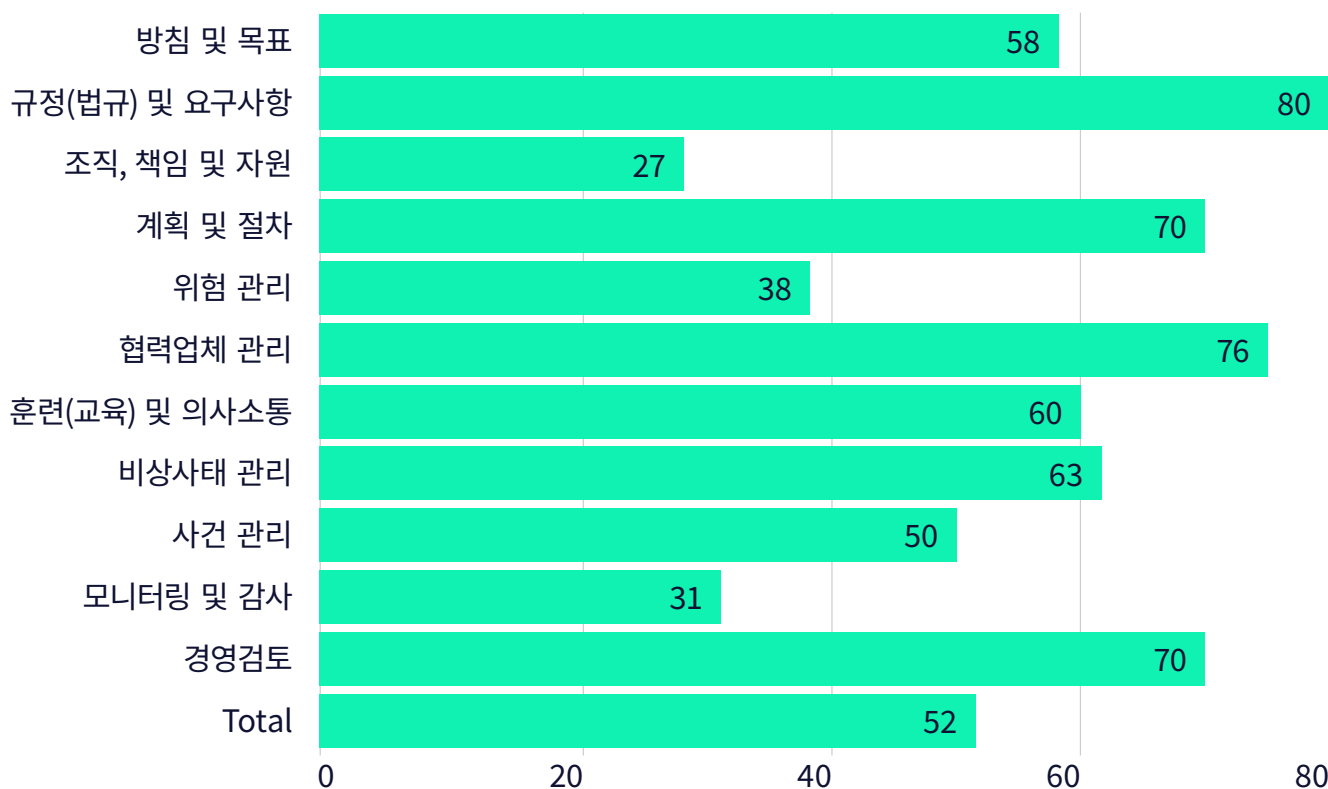
넘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주요 사고 유형에서도 19년 대비 23년 약 19%의 사고 통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법규 준수의 맹점 분석

근본 개선 없는 임기응변

중처법 제 4조는 기업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 원인 제거를 넘어, 근본원인(Root Cause)을 찾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rank E. Bird를 비롯한 글로벌 안전 전문가들도 근본 원인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처법의 요구 사항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법적 대응에 치중하며 실질적인 근본 원인 분석과 개선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실제 LRQA 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의 결과 데이터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의 공통점이 파악 됩니다.

규정 및 법규 요구사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책임, 위험관리, 사고조사, 모니터링 등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 역량이 부재 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기업들의 숙제일 것 입니다.

법규 준수의 맹점 분석

안전 전문성의 부재

법무법인들은 높은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지원하지만, 안전 전문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원인 분석(RCA)과 사건학습(Learning From Incident)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급증하며, 기업의 안전관리자로서 채용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안전 리스크 평가와 예방 역량보다 '자격증 보유 여부'에 안전관리자 역량을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영진의 인식은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안전은 법규 준수가 목표이며,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발생 후의 대응(손실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이러한 한계가 있는지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한계가 있는지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 우리회사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 우리회사는 사고조사를 하기 위한 명확한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가?
-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 경영진은 안전 리더십 의지를 실천 할 수 있는 실행 수단이 있는가?

기업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사고가 적게, 또는 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 전략

앞서 사고 트렌드가 보여주듯, 법규 준수와 사고 예방은 항상 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효율적 안전보건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책임, 위험관리, 사고조사, 모니터링 등에 대한 시스템 강화와 전문성을 갖춘 역량 확보가 시급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강화

중처법 시행령의 제4조의 요구사항들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11개 핵심요소



계획 및 절차



비상사태



방침과 목표



위험 관리



사건관리



법적요구사항



협력업체 관리



모니터링 감사



책임 및 자원



훈련 의사소통



경영검토

글로벌 기업들은 중처법 시행령의 제4조 요구사항을 과거에도 준수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들을 겪으며 축적된 노하우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처법 시행령의 제4조 요구사항을 자연스럽게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화 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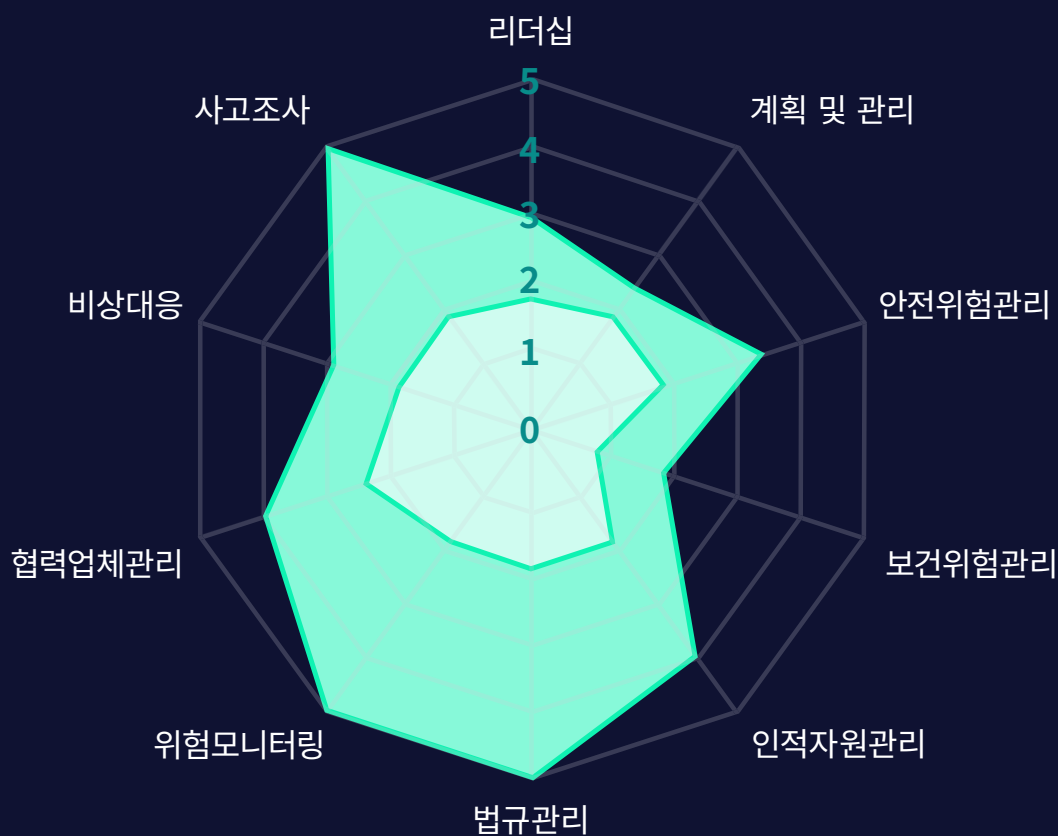
안전 전문성 역량 확보

이제 우리 기업들도 폭넓은 안전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채용하거나 훈련 등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은 성공적인 역량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안전보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 발생된 사고 분석, 법규사항,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RQA 국내 B기업 임직원 안전 역량 평가 사례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결론: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로 나아가기

중처법은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사고 예방과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법적 준수에 머무르지 말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본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중처법 시행 4년차의 전환점으로, 우리 조직의 안전 시스템과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기업이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리더십의 실천 : 리더십 투어
- 위험 관리 : 작업, 공정, 구역 등의 세분화된 위험성 평가
- 역량 및 훈련 : 위험 역량 분석 및 평가를 기반한 교육 매트릭스
- 근본 원인의 파악 및 제거 : 사고조사 (RCA) 프로그램
- 모니터링과 감사 : 관찰, 점검, 안전인식 서베이





LRQA 소개

LRQA는 평가, 어드바이저리, 검사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 간 독보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어슈어런스 파트너입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기반 파트너십은 고객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지원합니다. 현재 LRQA는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컴플라이언스, 공급망, 사이버 보안, ESG 분야 전문가 등 5,000여 명의 임직원과 함께 150여 개국, 약 61,000여 곳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예측, 완화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회사 임직원, 고객, 지역 사회 및 환경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lrqa.com/ko-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 2 736 62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RQA
2F T Tower
30 Sowol-ro 2-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637



Care is taken to ensure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and up to date; however, LRQA accepts no responsibility for inaccuracies in or changes to information.